

지역 소식통

비바청춘 창업프로그램  
정읍시 2기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지역의 성장 도약을 견인할 청년 창업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끌 청 · 장년 창업가 양성 지원을 위해 '2020 비바청춘 창업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비바청춘 창업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청 · 장년층에게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조기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다.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뿐 아니라 상권분석 · 매장 구성 방법 · 리모델링 전략 등 교육 생활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 비바청춘 창업프로그램 1기를 통해 4명의 교육생이 실제로 창업한 바 있다. 관련해시는 오는 11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2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형 푸드플랜 힘찬 시동  
로컬푸드 성공사례 특강

부안군은 3일 개최된 8월 열린공간의 날 행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안형 푸드플랜 기반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성공사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이종진 경제사무를 초청해 '로컬푸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향 군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종진 강사는 완주군 로컬푸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사항과 성공요인을 강의를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품목별 생산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2025년까지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에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소농가 1000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노을대교 건설 힘 모은다

## 부안 · 고창군, 공항서 합동 설명회 갖고 시급성 한목청 "서남권 물류 대동맥 이어 환황해시대 균형발전 이뤄야"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을 잇는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을 위해 부안군과 고창군이 힘을 합쳤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창대교 시작 지점인 부안군 변산면 공항에서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부창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할 다리를 말한다. 전체 7.48km 길이다. 완공면 62.5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거리가 7km로 줄고 통행시간도 50분에서 10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부창대교는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중 광역도로망 구축(남북축)과 관련돼 있고, 국도 77호선(경기 파주 ~ 부안)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꼭 완성해야 될 사업이다.

특히 2022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2023년 새만금 세계자연유산, 2026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등 전북 서남권의 물류와 사람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핵심 SOC인 '부창대교 건설'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창과 부안은 해마다 100억원 가까운 운행 비용을 절감하고 부안 변산 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지구의

를 잇는 서해안권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합동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고창과 부안은 올 연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5차 국도 · 국지도 5개년 계획(2021 ~ 2025)의 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과 고창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은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중국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서해안

권의 중 · 소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식품 특화산업 단지인 고창유원(111) 단지가 본격 가동되고,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 되면 엄청난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부창대교 건설은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부안~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연간 400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달 31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창대교 시작 지점인 부안군 변산면 공항에서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이 반짝이는 초록빛 녹음으로 온 산아를 가득 매우며 싱그러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 녹음 우거진 내장산, 녹색 바람 솔솔~

### 휴가철 관광객들 발길 이어져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이 반짝이는 초록빛 녹음으로 온 산아를 가득 매우며 싱그러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한껏 짙어지고 있는 녹음은 눈을 깨끗하게 만들고 온갖 이름 모를 새소리는 귀를 열게 한다.

또 살랑바람에 하늘거리는 녹색 잎에 잠마찰 끈적한 습도로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가슴은 시원해진다.

특히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우화정(羽化亭)과 신선재(神仙臺)의 하얀 물보라가 어우러진 정경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내장산 초록은 7월~8월이면 쾌청한 녹색 바다를 이루며 울창함이 절정을 이룬다. 투명구슬처럼 맑은 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여름 내장산의 아름다움은 하청음(夏淸陰)이라는 청량한 별칭을 갖기에 충분하다.

내장산 부속 암자인 원적암 일대에 있는 비자림(천연기념물 제153호)이 특히 유명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찾아온 피서객들이 산행의 즐거움에 푹 빠진다.

또 기묘하게 솟은 기암절벽과 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깊은 계곡들은 푸르른 숲과 어울려, 천혜의 명산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 내장산의 피톤치드 가득한 초록빛 숲과 깨끗한 물, 상쾌한 바람이 코로나 19로 지쳐있는 일상에 싱그러움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 · 부안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연장

### 10% 할인... 12월 말까지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4~7월까지 적용했던 정읍사랑 상품권 10% 할인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조치다.

상품권 구매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10% 할인받기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 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준)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읍=김대환 기자

급제난지원금 등 정책발행분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됐다.

부안사랑상품권 수요증가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부안군 내 가맹점 수는 1484개 업체로 지난해 380여개 업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 이용자의 편의성도 한결 높아졌다.

부안사랑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고 대리구매는 불가하며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농 · 축협, 신협, 전북은행 등 지역내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부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했다"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황토땅서 자란 달콤한 '햇고구마' 드세요~

###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영농조합법인 첫 수확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황토땅에서 재배한 햇고구마를 3일 첫 수확했다.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서늘한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구마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고창은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한 황토 땅에서 자라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정식 후 150일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나 속성재배기술(비닐멀칭 후 이종터널 설치)을 도입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수확하게 되면서 여름 휴가철에 맞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인기를 끌 전망이다.

고창군은 1185농가에 1250ha의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명성으로 고창군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았

다. 햇고구마 첫 수확 현장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부의장, 조규철 고창군의회 군의원, 진기영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장, 김민진 대성농협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햇고구마 수확에 들어간 고창 황토배기 청정고구마영농조합법인(대표 서재필)은 속성재배면적 65ha를 한 달간 수확해 햇고구마 1500톤을 전국 이마트와 도매시장으로 1kg당 4000원에 출하해 고소득을 올릴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최고의 품질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